

6th Story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Through the Roof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 6th Story -

나레이션

예수님은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는데,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한번은 예수님이 작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 소식이 온 마을에 알려져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작은 집에 다 모여들다 보니까 몸을 돌리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답니다. 세상에... 도무지 들어가 볼 수가 없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뭘 어떡해야 하지?

친구 1

근데 우리 예수님 보려고 왔잖아.

친구 2

아모스

얘들아, 난 예수님을 잘 알아. 그분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구. 예수님이시라면 날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친구 2

우리도 안다구... 하지만, 너무 뻣뻣하잖아.

친구 3

그래... 우리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친구 2

어디 보자... 문은 뭐 아예 사람들로 막혀버렸는데?

친구 1

창문도 막혔는데? 아모스 난 모르겠어. 아무래도 어렵겠는데? -

아모스

지붕~!!

친구들

뭐?

아모스

지붕을 뜯어서 나를 내려줄 수 있겠어? 집마다 지붕 덮개가 있잖아. 우리가 저기로 올라갈 수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그리로 내려 보내줄 수 있지 않겠냐구?

친구 3

그래 그래 꽤 괜찮은 생각 같은데?

친구 2

그래... 좋은 생각이야. 문제는 우리가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는건데...

아모스

내가 집 뒤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본 것 같아.

친구 1

그래 그래. 해보자 고고

친구 2

니가 똥똥하지 않은 게 정말 은혜다. 네가 가벼워서 한결 편할 것 같은데?

나레이션

한참 애쓴 후에, 네 명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지붕 위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은 아직 집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고치시고 계셨어요.





- 아모스 애들아. 나를 좀 내려줘. 조심해서~~
- 친구들 알았어... 잘 될 거야. 꼭 잡아 알았지?
- 나레이션 친구들이 아픈 친구를 집안으로 내려보냈을 때, 예수님은 하시던 일들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들것채로 내려오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셨어요. 아픈 친구는 사람들 한 가운데, 바로 예수님 코앞에 내려졌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엄청 놀랐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마아일~~ 미소지으셨어요.
- 예수님 안녕 친구~!!
- 아모스 아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 예수님 걱정하지 마렴. 너의 죄들은 다 용서받았단다.
- 나레이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 바리새인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 거 아냐? 자기가 뭔데 누굴 용서하고 자시고 한다는거야? 하나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보지?
- 나레이션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알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 예수님 왜 너희들은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는거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이나 "일어나 걸어라"하는 말을 하는 것이 쉬운 줄로 아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겠노라. (아픈 친구를 보며)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거라~!
- 나레이션 바로 그때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중풍병으로 움직이기도 힘들어했던 친구는 기적처럼 일어났구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 아모스 오 마이 갓~!!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님이 절 고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만세~~
- (놀라하며) 세상에~ 와우~~ 할렐루야~~ 어메이징~~
- 나레이션 아팠던 친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물론 자기의 두발로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갔죠.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다시 걷게하신 예수님을 보며 놀라워하면서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했답니다.